음식과 수행

체질과 음식 ⑥

음식물의 체질분류는 기본적으로 태양과 물에 의해서 결정

앞 호에서 먹거리가 체질에 맞지 않을 때 병이 생기며 체질과 식품이 서로 충돌하면 결국에는 건강을 잃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자기 체질을 알고 각종 식품의 성질을 알면 모든 것은 해결될 것이라고도 언급했다. 그럼, 이제부터는 체질과 먹거리의 성질을 분석하여 알아보도록 한다. 다만, 앞에서 "체질섭생건강법"에 의해 강양, 약양, 강음, 약음이라는 4가지 체질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마의 사상체질인 태양, 소양, 태음, 소음과 비슷하기 때문에 지면관계상 생략하기로 하고 우리가 먹는 음식물의 체질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음식물의 체질분류는 기본적으로 태양과 물이 결정한다고 보면 틀림이 없겠다. 모든 생명체는 태양과 물, 즉 양과 음의 영향권을 벗어날 수 없다는 대원칙에 따라 음식물의 재료가 되는 식물과 동물도 인간과 마찬가지로 음양의 조화를 이루며 살고 있음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음지에 사는 식물은 양이 강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태양을 피해 그늘에 살고 있는 것이며 양지에서 태양을 바라보며 사는 식물은 음이 강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낮에 주로 활동하는 동물과 야행성 동물 사이에도 이런 상관관계가 있고 물을 싫어하는 품종과 좋아하는 품종도 체질에 따라 그런 성향을 보인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식품의 체질구별은 그 기초가 완성된 셈이다.

다음으로 음식물이 되는 식품재료의 기질적 성격을 살펴보자. 같은 품종이라도 생정(生庭) 환경이 본래의 체질에 적합한 개체가 그 성질이 더 강하다. 예를 들어 음지에서 자라는 대표적인 강양 성질인 인삼이라면 그 본래의 체질에 맞게 습하고 그늘진 곳에서 자란 건강한 인삼이 더 강양의 성질을 띠게 된다. 대표적인 강음 동물인 돼지라면 더운 지방에서 건조하게 길러진 것이 서늘한 곳에서 습하게 길러진 것보다 음성이 더 강한 것이다.

또 인공적으로 재배되거나 사육된 것보다 자연 상태에서 자란 것이 본래의 성질이 더 강하다. 제철이 아닐 때 비닐하우스에서 자란 상추보다는 제철에 태양 아래서 나서 자란 것이 더 강하고 농장에서 사료를 먹고 자란 꿩보다 야생의 꿩이 강양 성질이 훨씬 강하다는 뜻이다.이것은 양성 체질은 양지에서 자라는 식품이 좋고 음성 체질은 음지에서 자라는 식품이 좋은 것과 통한다. 이는 서로 상대되는 개념으로 양지에는 그 반대성향을 띤 음성식물이 자라므로 그와 상대되는 양성 체질에 적합한 것이고, 음지는 양성 식물이 자라므로 음성 체질에 좋은 것이다. 인체와 그 환경은 같은 체질이어서 같은 환경의 음식이 좋다는 뜻이다. 우리 땅과 환경에서 생산되는 식품은 같은 이치로 땅과 같은 체질인 우리 몸에 가장 적합한 조화를 이루게 된다.*

이승우 기자

: 삼수의 원리로 완성되는 하나님의 역사〈10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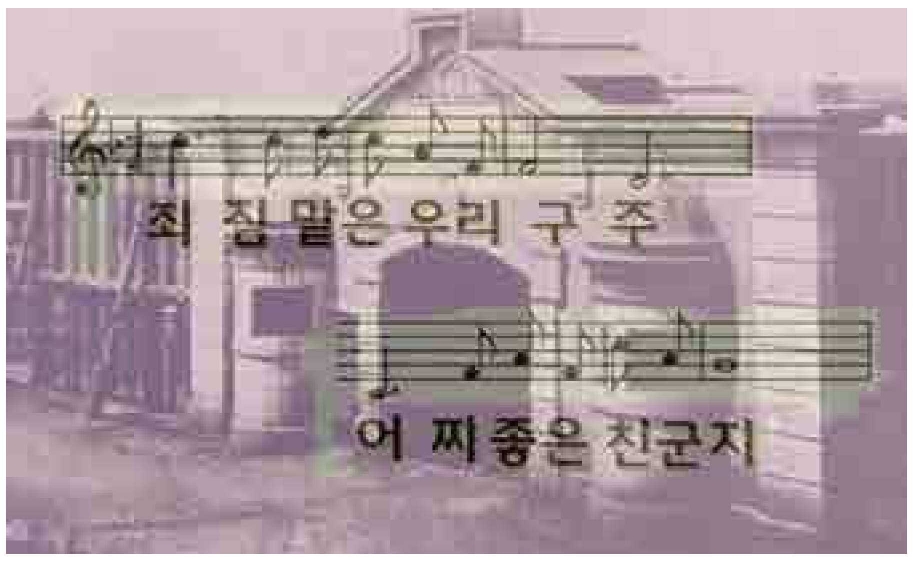
이긴자 일대기

언제 사형집행 당할지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

2절: 6.25전쟁 중에 있었던 무서운 연단
1) 주일예배 인도하다가 죽음의 고난을 당하심
2) 전쟁 포로가 되어 모진 고문을 받음
3) 북으로 북으로
4) 필사의 탈출
5) 신양리 형무소의 독방생활
6) 총살당하다

5) 신양리 형무소의 독방생활

일곱째 천사는 함경도 원산 북쪽의 고원 탄광촌에서 평양으로 압송되었습니다. 평양 서문 밖에 있는 신양리 형무소에 투옥되었는데, 거기에는 북한뿐만 아니라 남한에서 끌려온 저명인사들이 반동분자로 취급받으며 옥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는 찬송가는, 일본 강점기 안이숙이라는 사람이 신사참배 강요에 불응하고 평양 형무소에 붙잡혀가서 오늘 죽을지 내일 사형집형을 당할지 모르는 운명 속에서, 그 감방 안에서 지은 시를 작곡한 것입니다.

그런데 일곱째 천사도 마찬가지로 평양 신양리 형무소에서 한 달 반 동안 감금되었을 때 똑같은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보냈던 것입니다. 밥이라고는 하루에 한 번씩 주는데 밀 삶은 것에 모래를 섞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주면서 하는 말이 "너희들은 이왕 죽을 놈들이니까 총살을 시키면 총알이 아까워, 그러니까 모래를 골라내지 말고 그냥 먹고 맹장염이나 걸려서 뒈져!" 하는 것이었습니다. 매끼마다 학대를 하기에, 그 형무소에 갇힌 사람들이 너무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워 대부분 다 모래째 먹고 죽어나가는 것입니다. 일곱째 천사와 함께 감방에 들어왔던 사람들 모두가 10일이나 20일 후에 죽어나갔고 다른 사람으로 채워졌던 것입니다.

일곱째 천사는 감방에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죄짐맡은 우리 구주' 찬송부르며 하나님께 생명을 맡겨
위의 사진은 평양형무소, 출처 http://blog.daum.net/mtcouple/50

형무소 안에는 구슬 같은 눈물을 흘리며 대성통곡을 하고 우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불안한 마음을 갖고 늘 긴장 속에서 지내기 때문에 피가 썩어 얼굴이 시커멓게 변해 갔습니다. 그러나 일곱째 천사는 '이 사람이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이것이 필요하시다면 이것을 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필요하시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죽게끔 내버려두세요.' 하는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지냈습니다. 일곱째 천사만은 항상 마음이 태평한 상태에서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 뜻에 맡긴 채 한 번도 실망이나 낙심을 하지 않고 구원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항상 얼굴이 환한 상태로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수들도, "이 반동 아새끼는 먹는 것도 없는데 얼굴이 좋다." 하면서 때리기도 하였습니다.

인민군들이 끼마다 주는 식사로 밀과 모래를 섞어서 삶아줄 때, 일곱째 천사는 그 모래를 입안에서 골라 한쪽 구석으로 몰아넣고 밀만 삼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간수가 모래를 골라 뱉는 것을 보고는 긴 나무막대기로 머리를 쾅 내려치니 머리가 핑 돌아서 한동안 정신을 잃은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감방 안에서도 끊임없이 찬송을 부르는 일곱째 천사

당시에 일곱째 천사는 서울 대학생으로서 무슨 큰 죄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 그렇게 모질게 학대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 신양리 형무소에서는 한 사람이 들어가 앉아도 여유가 없는 작은 독방이었는데, 인민군들은 거기에 6명을 집어넣었습니다. 한 사람이 들어가도 꽉 차는 독방에 6명을 집어넣으니 몸을 움직일 수 없으므로 쥐가 나서 한 사람씩 죽어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쥐가 난 곳을 주물러 주면 주물러 주는 사람의 손에 쥐가 나기 때문에, 옆 사람이 쥐가 나도 주물러 줄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죽어 나가면 또 다른 사람을 집어넣기 때문에 항상 6명이 꼭꼭 끼인 상태로 뜨거운 여름철에 서로 살을 대고 엉켜 지내야만 했습니다. 밤낮없이 다리도 펴지 못하고 좁아서 누울 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땀이 몸에서 줄줄 흐르고 목이 몹시 말랐으나 인민군들은 물도 주지 않았습니다.

일곱째 천사는 감방 안에서도 끊임없이 찬송을 불렀습니다. '죄짐맡은 우리 구주' 라는 찬송을 콧노래로 부르니 같이 있던 사람들이 노래 곡조가 너무 좋다며 가르쳐 달라고 하기에 가르쳐 주어 같이 부르기도 하였습니다. 이 찬송을 부르니, 하나님께서 폭포수와 같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또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라는 찬송을 콧노래로 부르며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생활을 하였던 것입니다. 간수가 찬송을 못 부르게 하니, 일곱째 천사는 그 이후로 마음속으로 불렀습니다. 인민군은 가장 나이가 어린 일곱째 천사를 죽이기가 아까웠던지 "예수를 믿지 않겠다면 살려주겠다."고 말했지만, 일곱째 천사는 인민군의 말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 독방에 들어온 죄수는 모두 중벌로 다스려 죽이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의 사정을 들어보았지만, 일곱째 천사는 자신만큼 매를 맞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모두들 "다시는 그러지 않겠으니 봐 달라"고 하면서 놈들에게 항복했기 때문에 매를 피할 수 있었으나 일곱째 천사만은 불의 앞에서 결코 굴하지 않고 항복하지 않았기에 죽을 때까지 그 모진 매를 맞았던 것이었습니다.

당시 일곱째 천사는 스무 살이었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이 스무 살에 그와 같은 연단을 받았던 것은, 장차 이긴자가 되어 세계 만민들을 구원하는 사명을 완수하기 위한 밑거름이 되었던 것입니다.*

박한수

승리제단 음악총감독 겸 무궁화관현악단 지휘자 김성우

승리제단 멀티 엔터테이너 김선애 님이 '영상'을 멋드러지게 불렀다

무궁화 관현악단과 협연으로 이슬성신절 찬가를 아름답게 부르고 있는 무궁화합창단

↘깔끔하고 세련된 멘트로 빛난 사회자 박철수 승사

↑절제미와 하모니를 적절하게 안배한 부산제단 식구들의 합창

마산제단 식구들의 신나는 율동에 필을 받아 성도 모두가 일어나 춤을 추고 있다

월드컵송에 맞추어 율동을 하고 있는 마산제단 식구들